

안전지대 없는 결핵 “인식부터 바뀌어야”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취재를 위해 찾은 인천 부평구보건소는 2004년 신축한 깨끗한 건물 안에 다양한 지역주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결핵실'이라는 간판을 단 문을 여니 윤해영 간호사가 활짝 웃는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부평구 보건소의 환자 현황. 현재 부평구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140여 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조금은 많은 듯한 숫자이다.

“부평구 인구가 57만 명이 넘어요. 인천시의 총 3%에 해당하는 공간에 인천 인구의 22%가 거주하고 있으니 엄청난 규모지요. 결핵환자 관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보건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부평구의 경우 2개 보건소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차분한 어조로 보건소 현황을 설명한 윤해영 간호사는 94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결핵 업무를 맡아오다가 다른 부서를 두루 거쳐 2006년 2월부터 다시 결핵업무를 맡아오고 있는 베테랑이다.

“처음 결핵실 발령을 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일반적인 보건소 업무들은 연관성이 있는데 결핵 업무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혹여 실수라도 할까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렇게 얼마간 지나니 업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거쳐 이제는 베테랑이라는 호칭이 전



▲ 부평구보건소의 결핵업무를 총괄하는 김정희 모자보건 팀장(가운데), 윤해영(좌측), 최양지(우측) 간호사.

혀 낮설지 않은 윤해영 간호사는 최근 학교에서의 결핵 발병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결핵이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었는데 요즘엔 말쑥한 젊은 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그야말로 결핵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바뀐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PPD 테스트를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해당 학생이 알려지게 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대네요.” 어떤 학부모는 학교에 테스트를 나가지 말아 달라, 예민한 아이가 상처받는다며 몇 번씩이나 찾아와 애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결핵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통토가 낯은 씩씩한 풍경이다. 협회와 보건소, 학교 등이 합심해 극복해야 할 결핵에 대한 편견이기도 하다. †